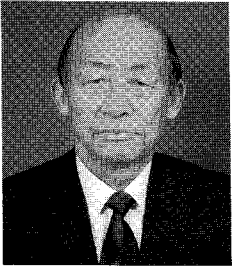


농업토목사업의 방향

고문 이 희 영



앞으로의 농업토목사업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포괄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인 관개배수시설, 경지정리 그리고 농지개발, 농지의 개량·보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인 농촌취락의 배수시설, 농업취락 도로, 농촌주택 개량, 전원 주거공간의 정비, 농촌 근대화와 생활화를 위한 용지정비, 수변환경 및 자연환경 정비 등의 사업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의 장이고, 농민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장인 동시에, 자연의 생태계와 조화된 국토의 보전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어촌 개발은 다면적이며, 공익적 기능을 적절이 조화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주변 경관을 배려한 계획이어야 하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농촌에 있어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하여 농촌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소득의 증대, 노동시간의 단축,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어촌공간의 조성, 지역의 방재보전과 적절한 자원의 개발 관리등을 실현시켜 지역경제의 진흥, 지역환경의 개선, 지역사회자본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농업토목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와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며, 기간수리시설의 정비, 대규모 경지정리, 농지의 다면적 활용, 발관개 시설의 정비 등 근본적인 개선과 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또한 기업이나 연구기관등의 유치, 여가공간의 확보, 시민농원과 농촌공원 등을 조성하여 국토 보전 및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농업토목사업 분야는 참으로 중요하고 광범위하며 다양하므로 농업토목사업을 통한 농촌의 안정된 발전없이는 국가와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안정을 이룰수 없다는 것을 우리 다같이 깊이 생각해 야 할 것이다.